

# 광주은행 한국화 공모전 '광주화루' 작가전



하응주 작 'BLIND'

광주 하성흡 작가 등  
2차 심사 통과 10명  
23일까지 문화전당 전시  
전시 기간 인터뷰 심사  
3000만원 대상 등 뽑아  
초대작가상 5000만원도



하성흡 작 '1980.5.21 광주'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한국화 부흥을 위해 아심차게 준비한 공모전 '광주화루(畫樓)' 대상 후보작들이 공개됐다. 제1회 '광주화루' 입선작을 선보이는 '10인의 작가전'이 4~2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열린다. 개막식 4일 오후 5시.

광주은행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 주최한 '광주화루'는 총 상금 1억원 규모로, 공모전과 작가상으로 구성된다. 명칭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들이 모여 솜씨를 겨루던 모임 '회루(繪樓)'에서 따왔다.

눈에 띄는 점은 공모전 심사방식이다. 김정희의 제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작품을 품평하는 회루 정신을 이어 받아 심사위원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했다. 별도 심사위원장을 두지 않고, 심사위원 5명 신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심사위원을 맡았던 송영방·박대성 한국화가, 김성철 동덕여대

교수, 이원복 부산박물관장, 이준희 '월간미술' 편집장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위원이 누군지 몰랐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10월 진행된 공모에는 전국 한국화가 83명이 참여했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차 출품작 개별심사를 통해 작가 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전시는 2차 심사 통과 작가의 출품작 1점과 신작 1점을 나란히 배치하며 총 20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선정된 작가는 광주 출신 장예술·하성흡·하응주씨를 비롯해 구본아·김원·박경묵·이지연·이재영·이태량·이호익씨다. 30대부터 50대까지, 광주·서울·전북 출신 등 학교, 지역, 연령대가 다양하다.

특히 수상자 발표 전에 전시를 열어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높인 점도 눈길을 끈다. 전시기간 3차 작가 작업실 방문 인터뷰 심사를 통해 대상 1명(30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0만원)을 뽑는다. 여는 공모전과 달리 작품 구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온전한 상금과 수상작은 작가들에게 돌아간다.

전시장은 작품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작품 색채와 어울리는 칸막이를 사용했고, 작은 명제표 외에는 작가 이름을 써놓지 않아 시선을 그림으로 유도한다.

또 먹 뿐 아니라 아크릴 물감을 재료한 작품도 공모 대상에 포함시켜 작품 재료와 소재도 다채롭다. 전통 산수를 비롯해 추상화, 인물화, 도시의 풍경까지 수묵, 콜라주, 분채를 활용해 작가들이 건네는 세상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공모작은 모두 신작이 대상인 만큼 이번 전시에서는 현대 한국화의 모습과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을 위한 '관람객이 뽑은 작품' 이벤트로 마련했다. 전시 기간 마음에 드

는 작품을 종이에 적어 넣는 방식이다.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는 작가에게도 상품을 증정한다.

초대 작가상 수상자도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은행측은 추천위원회와 심사위원회를 거쳐 매년 1명을 선정해 상금 5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모전과 작가상 수상자는 오는 18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금 이외에도 2년 이내 전시회 개최 비용 또는 국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참가비용을 1000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김한 은행장은 "타 장르에 비해 갈수록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화를 예향 광주에서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며 "'광주화루'를 통해 한국화가 다시 관심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39-50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심안의 세계-물빛'...양규철 초대전



▶'물빛'

### 보성백민미술관 16일까지

지역 원로 수재화가 양규철씨가 보성군립백민미술관에서 16일까지 '심안(心眼)의 세계-물빛'을 주제로 초대전을 연다. 양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특유의 투명함과 색채감을 담은 작품 40여점을 선보인다.

작품 소재는 주로 산과 계곡이다. 전시에 출품된 '계곡' 연작은 평생 천착한 예술세계를 한눈에 보여준다. 계곡에 고인 물과 물에 잠긴 돌, 햇빛에 드러난 바위 등 평범한 소재들을 활용해 담백하면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동양적 색채를 토했다.

작품 '물빛'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양 화백의 시각을 느낄 수 있다. 햇빛을

가득 받고 있는 계곡물을 소재로 삼아 소박함과 명상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또 '설촌', '봄의 노래', '설경' 등에서는 사계절과 날씨에 따른 자연 풍경을 담았다. 자연과 어우러진 마을들은 양 화백이 생각하는 이상향이다.

그밖에 '영광군 백수', '삼학도' 등 현 장 분위기를 담은 작품도 다수 출품했다. 양씨는 1968년 배동신 화백, 박철교 화백 등과 함께 지역 최초 수채화가단체인 '수채화창작가협회'를 결성했다. 1970년부터 약 30년간 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채화 100주년 초대전, 아시아수채화연맹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1-853-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갤러리 리채 15일까지 김성식 조각전

조각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전달하고 있는 김성식 작가가 갤러리 리채에서 15일까지 '김성식 조각전'을 연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펄프 혼합재료로 제작한 신작 20여점을 선보인다.

전북 익산 출신으로 광주에서 주로 활동하는 김 작가는 평생 그리워하는 고향을 원시적인 형상으로 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재료가 눈길을 끈다. 30여년 간 돌조각 작업을 한 김 작가는 바람 소리, 구름, 하천 냇새 등 자연 형상을 묘사하기 위해 펄프를 사용했다. 여러번 문치고 말려 돌 같이 단단한 펄프에 형광색을 넣어 화려함을 더했다.

'기억' 연작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나 식물이 소재다. 마치 청동기 시대 제기(祭器)처럼 대상을 단순화하면서도 특징을 포착한 점이 눈에 띈다.

또 '인덕', '초상', '봄' 등에서 볼 수 있듯 펄프가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표



'봄'

면 윤곽이 정교해진 분위기를 더한다. 김씨는 조선대 미술대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남미술대전, 동아미술제, 미술세계 선정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개인전 13회를 열었으며 현재 백화조각회, 그룹 '새벽', '에보코'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

## 1500년전 모습 그대로...백제금동신발 환생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완벽 복원 성공...상설전시

지난 2014년 나주 다시면 정촌고분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신발은 완벽한 보존상태로 세상을 놀라게했다. 1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믿기지 않을 만큼 세밀하게 가공한 용머리 장식이 온전히 남아 있다.

금동신발이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현대 최첨단 기술과 전통 공예기술을 접목해 복원, 상설전시한다.

신발은 금을 재료로 하며 화려함과 세련미를 보여준다. 발굽면 신발은 발목 부분이 훼손됐고 한쪽 용머리 장식이 떨어져 나갔지만 고스란히 복원되며 한쌍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연구소 분석결과, 금동신발 크기는 길이 32cm·높이 9cm·너비 9.5cm이다. 한쪽 무게는 녹이 포함된 진품이 510g, 복원품이 460g이다. 사람이 신기에는 크고 무거워 시신과 함께 무덤에 넣는 부장품으로 추정된다. 문판은 두께 0.5mm 구리판에 순금(99%)

을 5~10μm(1μm=1/1000mm) 두께로 입혀 만들어졌다. 용머리 장식을 비롯한 연꽃·도깨비 문양 등은 백제 금속공예기법 중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투조기법(금속판을 도려내는 기법)과 축조기법(금속 판에 선을 긋는 기법)이 사용됐다.

연구소 측은 3차원 입체(3D) 스캔 등을 동원해 설계도면 작성, 부속품 제작, 조립하는 방식으로 복원했다. 또한 수은과 금가루를 활용한 전통 도금기술인 수은 아말감 기법도 사용했다.

한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금동신



발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해 주요 문양을 국유특허로 등록(30-2015-0053241 등 8건)했다. 또 지난해 동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금동신발을 비롯한 문화재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의 061-339-1122. /김용희기자 kimyh@

## 에능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7년 4월호

3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빛고을, 미디어아트를 켜다

특집

– 세계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 어떤 빛깔일까?  
– 생생한 즐거움, 미디어아트 플랫폼을 가다  
– 빛의 도시 밝히는 광주의 미디어아티스트들

기획  
영·호남합동행정안전대원 동계훈련 동행 르포  
일본 야츠카다게 산군 오르며  
등반의 의미 묻다

소문난 예술교육현장을 찾아서(1)  
세계 제일의 인상주의 컬렉션  
미적 체험과 창작 이끄는  
파리 오르세미술관

노중환의 꿈의 여행(1)  
우뚝한 고대문명의 불가사의  
이집트

여행이 만난 이 사람  
코카콜라 애장품 기증 코카콜라 단생신기 컬렉터 김용은  
'포수 동반 10홀런' 기록 가진 KIA 인방마님 이흥구

## 예향 초대석

### 복서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테너 조용갑

"꿈꾸는 이에게 날개 달아주고 싶어요"

대한민국 식물명인(4)  
시간과 정성으로 숙성시킨  
360년 증가의 손맛  
전통 진장 명인 기술도

남도 시간 속을 걷다(2)  
1930년생 무인 간이역  
보성 명봉역

백성들의 문화유기(3)  
약초오거리사건 다룬  
영화 <재삼>

장문수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재향과 선택(5)  
도스토옙스키 & 차이콥스키

키아싱 트레닝스 프로젝트(6)  
해양관광 수산도시의 상징,  
여수 곡동항

배극남의 대중문화 X파일(7)  
대중문화상의 역할과 문제는?  
흔들리는 수상의 공정성, 진정한 평가의 가치 훼손

문화 화제  
창립 25주년, 동인지 발간한  
'시와산문' 동인

트렌드 따라잡기(4)  
키덜트들의 레고홀릭  
브릭의 세계를 아는가?

아트 뉴스 & 리뷰  
오승운의 '꽃과 동수전'  
오방정색에 담은 한국의 정신

함평  
함평천지 너를 등,  
자연과 사람의 아름다움